



# 한국 평행봉 세계를 홀려라

### 전남도청 김대은, 9일 기계체조 '금 묘기' 도전

내년 8월 베이징에서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체조가 전남도청 김대은 등을 앞세워 제40회 세계 기계체조선수권대회 평행봉에서 최강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덴마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원철(포스코건설)이 공동 은메달을 따냈고 연말 도하 아시아게임에서는 김대은(전남도청)이 우승하는 등 최근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깊게 각인시키고 있는 분야다.

남자 대표팀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강 결선전 막차를 탈 수 있던 것도 평행봉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덕분이었다.

대표팀은 63.650점을 획득, 예선 1위 중국(63.900점), 2위 일본(63.775점)에 이어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평행봉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실력을 갖췄다.

이번 대회에서도 유원철이 16.275점으로 지난 대회 우승자 양웨이(중국·16.375점)에 이어 2위로 예선을 통과했고 김대은도 16.025점으로 결선에 진출하면서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작년 대회에서 유원철과 2위 자리를 나눠 가진 일본의 에이스 도미타 히로유키가 올해

에는 결선에 오르지 못한 점도 호재다.

대표팀 마형 양태영(포스코건설)이 결선 명단에서 빠졌지만 그 역시 예선에서 16.000점으로 수준급 기량을 뽐내 내년 올림픽에서 평행봉 금메달을 일굴 후보는 넘치는 편이다.

도마나 마루운동, 철봉처럼 공중 회전 후 착지가 어렵지 않고 림처럼 강한 근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한국 선수들이 평행봉을 선호한다.

전망은 밝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가능할 수 있는 이번 세계 대회에서 일단 그 결실을 맺고 싶은 게 체조인의 욕심이자 바람이다.

6일 밤 9시 열리는 단체전 결선에서도 한국이 타 팀을 압도할 수 있는 종목은 양태영, 유원철, 김대은이 나서는 평행봉이다. 여기서 점수를 만회하고 달아나려면 당초 목표인 5~6위 입상도 가능하다.

또 9일 밤 9시 벌어지는 평행봉 결선에서 금메달을 건진다면 한국은 1999년 중국 쉐닝 대회에서 현 대표팀 사령탑 이주형 감독이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한동안 사라진 금맥을 8년 만에 똑같은 종목에서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발랄한 소녀에서 우아한 여인까지 김연아, 슈퍼매치 공연서 새 갈라쇼 선사

이번 시즌 발랄한 분위기의 프로그램 '저스트 어 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현대카드 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14~16일·목동실내링크)를 앞두고 서정적 느낌의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대표 이희진)는 6일 "김연아가 슈퍼매치 공연을 위해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 '원스 어폰 어 드림'을 특별히 준비했다"며 "7월 일본 공연에서 첫 선을 보였던 '저스트 어 걸'을 포함해 두 개의 쇼 프로그램을 이번 공연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뮤지컬 '지킬 박사'와 하이든의 삼막극 '원스 어폰 어 드림'은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멜로디로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저스트 어 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김연아는 이번 슈퍼매치에서 1부 공연에서는 '저스트 어 걸'을, 2부 공연에서는 '원스 어폰 어 타임'을 연기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FA 최대어 김동주 어디로?

### 일본 진출설 모락모락...LG·롯데도 눈독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하는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31)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김동주 영입에 흥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역대 FA 최대어였던 심정수(32·삼성)의 '4년간 6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일본 구단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오릭스 버펄로스, 야쿠르트 스왈로스 등이다. 특히 일본의 석간 후지는 5일 '오릭스가 김동주와 SK 투수 레이번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본이 큰 금액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간 외국인선수는 보통 첫째 5천만~1억엔을 받는다. 또 처음부터 3년 이상 다년 계약을 하지도 않는다. 내년 32살이 되는 김동주가 이런 조건에 일본 진출을 감행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국내 구단 중에서는 현 소속 구단인 두산과 LG와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산 김진 사장은 최근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김동주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입장에서 1998년부터 10년간 몸담아온 두산이 우선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LG는 3루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자체 선수인 조인성(32)과 최원호(34)가 내년 FA로 풀리는 상황에서 김동주 영입에 거액을 들일지 미지수다.

롯데도 강병철 감독이 김동주에게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강 감독 본인이 올 시즌 계약이 끝나는 만큼 현재의 관심이 영입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곤 단언하기 어렵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홈런왕' 본즈, 12일만에 762호 작렬

'홈런왕'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2일 만에 홈런을 쏘아올리며 신기록 행진을 계속했다.

본즈는 6일(이하 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 좌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출장, 1회 초 2사 2루에서 콜로라도 우완 선발 우발도 히메네스로부터 좌측펜스를 넘어가는 선제 2점 홈런을 뽑았다.

지난 달 25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12일 만에 터진 개인 통산 762호이자 시즌 28호 홈런이다.

히메네스는 본즈에게 홈런을 허용한 449번째 투수가 됐다.

지난 달 8일 통산 756호 아치로 헨크 아론을 넘어서 홈런왕에 오른 본즈는 이날 불타 한계를 포함해 2타수 1안타, 1득점, 2타점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5-3으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체전 성화 5·18묘역·무등산서도 채화

제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계획이 확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8~14일까지 열리는 광주 전국체육대회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국립 5·18민주 묘역, 무등산에서 채화한다.

첫번째 성화(민족화합의 불)는 인천시 강화군 주판대 오는 21일 오전 전국체전 공식채화자인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돼 오는 21일 오후 광주시청에 안치한다.

두번째 성화(민주평화의 불)는 오는 2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채화돼 광주시

청에 안치된다.

마지막 성화(문화예술의 불)는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 남도예술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무등산(정상부근 영의혈기암)에서 채화된다.

3곳에서 채화된 전국체전 성화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시청 앞 광장에서 각 기관단체, 성화 봉송주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화된다.

합화된 성화는 688명의 봉송주자에 의해 광주지역 88개 구간(130km)를 돌아 개막일인 10월 8일 오후 6시 50분경 월드컵경기장 성화대에서 점화된다. /최재호기자 lion@

## 세계 유소년복싱 사상 첫 메달

### 성동현 등 3명 동메달 확보

### 내일 새벽 결승 진출 도전

한국 고교생 복서들이 세계 유소년복싱선수권대회 참가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 3개를 확보했다.

성동현(16·서울체고)은 6일 새벽(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바쿠스포츠홀에서 벌어진 제6회 세계유소년복싱선수권대회 5일째 밴텀급(52kg) 준준결승에서 수스 에릭(헝가리)을 20-9 판정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최소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성동현은 현

가리 강호 수스 에릭과 대결에서 예상을 깨고 1회부터 경기를 주도하며 포인트를 착실히 쌓은 끝에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플라이급(50kg) 이상민(16·대구체고)도 이날 하이다르베코프 자히딘(키르기스스탄)을 22-17 판정으로 누르고 4강에 올랐고, 이종엽(17·인천체고)은 사가리바예프 나이리즈베르(카자흐스탄)과 난타전을 주고 받은 끝에 4일 16강전에 이어 연속 2회 RSC승을 거두며 동메달 확보에 성공했다.

성동현 등 3명은 7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8일 새벽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7일(금)
  -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2R(13:00·Xports·KBSN)
  - ▲추계 유소년 축구연맹전(16:00·KBSN)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한신)(18:00·SBS 스포츠)

- ▲프로야구(SK-LG)(18:00·KBSN S-SPORTS), (삼성-현대)(18:00·MBC ESPN)

- 8일(토)
  - ▲US OPEN 테니스 남단식 8강/혼복 결승(00:30·Xports)
  - ▲PGA BMW 챔피언십 2R(04:00·SBS 스포츠)

**마음주사 후루민** 을 치료하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 제조업 : Mywin, Furumin 주식회사(주주)

■ 문의처 : **후루민연구소**

Tel : 062-983-6883

마음주사 후루민에 투치하신 병의원 원장님 및 일반 투치자를 모집합니다.

**바지사의 기부 -**  
말먹는 "루스터팬츠"

**루스터팬츠** ... **유리한 실무자 분리를 돕고자 제공하는 신사업 제품입니다**

루스터팬츠는 바지사의 기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지사의 기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바지사의 기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문의처: 1577-2787